



리프레시출판 데미안

겨울 방학 청소년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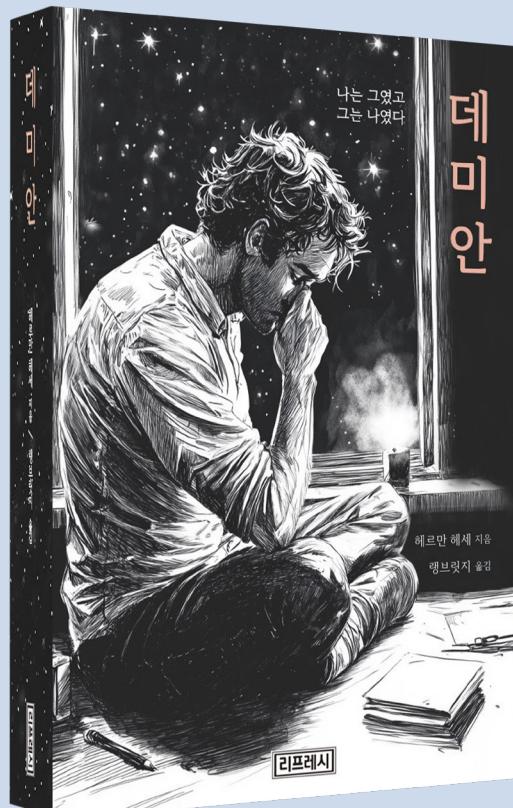
나는 그였고 그는 나였다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헤르만 해세>

데미안



등장 인물 소개

에밀 싱클레이어

소설의 주인공으로, 성장과 자아 발견의 여정을 걸어가는 소년. 싱클레이어는 선과 악, 두 세계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막스 데미안

싱클레이어의 친구이자 멘토 같은 존재로, 그에게 새로운 관점과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데미안은 선과 악의 경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사고를 상징하며, 싱클레이어의 내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아 트리체

싱클레이어가 동경하는 이상적 존재로, 그의 내면적 이상과 영적 깨달음을 상징한다. 그녀를 통해 싱클레이어는 자신의 예술적 감각과 내면 세계를 탐구하게 된다.

에바 부인

데미안의 어머니로, 모성적 사랑과 정신적 지혜를 가진 인물이다. 그녀는 싱클레이어에게 영적 완성의 상징으로 작용하며, 그의 깨달음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란츠 크로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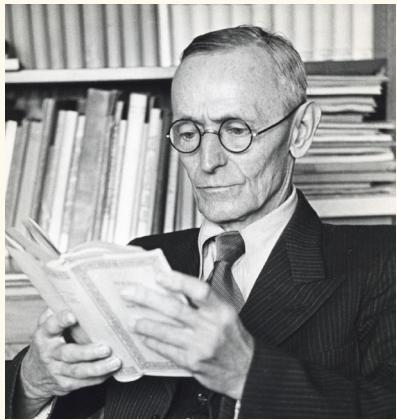
싱클레이어를 협박하며 그의 어린 시절에 어두운 영향을 미치는 불량 소년. 크로머는 싱클레이어가 선과 악의 경계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존재다..

피스토 리우스

싱클레이어가 만나는 오르간 연주자이자 정신적 안내자. 고대 신화와 상징에 대한 깊은 이해로 싱클레이어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가소개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1877-1962)



헤르만 헤세는 독일 출신의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인간의 내적 갈등과 자아 탐구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작인『데미안』,『싯다르타』,『유리알 유희』는 삶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문학은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 영향을 받아 동서양 사상을 결합한 독특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여전히 많은 독자에게 깊은 사색과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줄거리

주인공 싱클레어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 안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계와 그 외부의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계를 직감적으로 느끼며, 두 세계의 경계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한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 안락한 삶을 살아가던 그는 점차 외부 세계의 유혹과 위험을 마주하게 되며, 이러한 두 세계의 갈등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특히, 크로머라는 불량 소년과 얹히면서 거짓말과 협박의 늪에 빠지고, 이를 통해 죄책감과 공포를 처음으로 경험한다. 크로머와의 만남은 싱클레어가 순수한 어린 시절을 떠나 어두운 현실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건으로, 그의 내면에 깊은 혼적을 남긴다. 이 시련은 그의 삶을 뒤흔들며 처음으로 인간 내면의 양면성과 선과 악의 갈등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싱클레어는 이러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존재를 갈망하며, 데미안이라는 신비롭고 독특한 소년을 만나게 된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기존의 도덕적 규범과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설 것을 가르친다.

그는 선과 악의 경계가 단순히 사회적 관습일 뿐이며, 진정한 진리는 외부의 권위가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역할을 하며, 그의 사고와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인물로 작용한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외부 세계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아브락사스라는 신의 개념을 소개하며, 선과 악의 통합적 관점을 탐구하게 만든다.

아브락사스는 전통적인 도덕적 잣대를 넘어선 신으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복잡성과 양면성을 상징한다. 이 개념은 싱클레어가 기존의 가치관과 규범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진리를 찾아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싱클레어는 이후 베아트리체라는 이상적 존재를 동경하며 그녀를 자신의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베아트리체는 단순히 로맨틱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이상적 자아와 내면적 완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림 그리기는 싱클레어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자아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예술적 탐구는 그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후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의 역할을 넘어 모성적 사랑과 정신적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가 내면의 혼란과 갈등을 넘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돋는다. 그녀는 그의 깨달음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필요로 한 지침을 제공하며, 싱클레어가 자신을 초월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설의 결말에서 싱클레어는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혼란 속에 휘말리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독립된 존재로 거듭난다.

전쟁은 단순히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싱클레어가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화해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 과정으로 그려진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규범에 얹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목소리를 따라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싱클레어의 여정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의 길을 찾고, 내면적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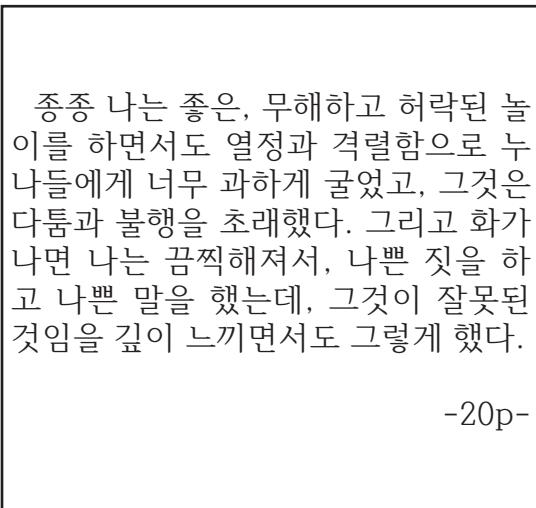
두개의 세계



첫 번째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부모님만 포함된 더 좁은 세계였다. 이 세계는 대부분 나에게 익숙했고,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를 의미했다.

다른 세계는 이미 우리 집 안에서 시작되었는데 완전히 다르고, 냄새도, 말도, 약속도 요구도 달랐다.

-15p-



주요 문장 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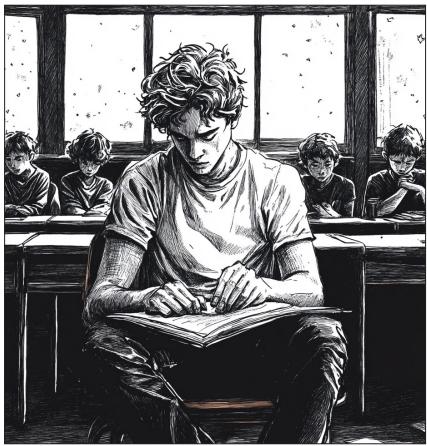
죽음과 변화의 두려움은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그것이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임을 직감했다.



생각 정리하기

싱클레어는 금지된 세계가 무섭지만 동시에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여러분은 금지된 것에 호기심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호기심은 어떤 호기심이었고 어떤 경험을 하게되었나요?

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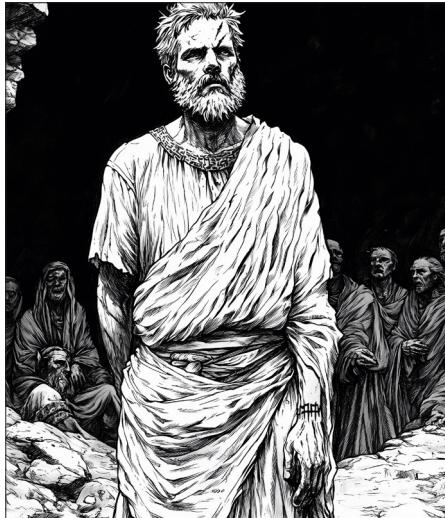


우리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배우는 동안, 나는 데미안을 자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나를 매료시켰다. 그는 매우 지적이고 확고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학생이 아닌, 자신의 연구 문제를 탐구하는 학자처럼 보였다.

-50p-

간단히 말해서, 카인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해서 그런 이야기를 붙였던 거야. 그 이야기는 단지 소문이었고, 사람들이 떠들어 대는 것과 같았어.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지. 왜냐하면 카인과 그의 자손들이 실제로 ‘표식’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야.”

-56p-



주요 문장 필사

강한 자가 강함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성과 진정한 모습이었다.



생각 정리하기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둑



이건 그저 감상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야. 감동을 위한 눈물과 신앙을 위한 배경이 가득한 이야기지. 아니, 다른 쪽이야, 그는 당당하고 성격이 있어. 그는 회개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아, 그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도와준 악마를 비겁하게 버리지 않아.

-100p-

— — — — —

진짜 데미안은 저런 모습이었다. 저렇게 돌처럼, 고대의 존재처럼, 동물처럼, 돌처럼, 아름답고 차가운, 죽은 듯하지만 놀라운 생명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이고요한 허공, 이 에테르와 별들의 공간, 이 고독한 죽음!

-108p-



주요 문장 필사

모든 인간은 자신 안의 허용된 세계와 금지된 세계 사이에서 자신만의 판단과 길을 찾아야 한다.



생각 정리하기

데미안은 회개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변화를 느낀 경험이 있나요?

베아트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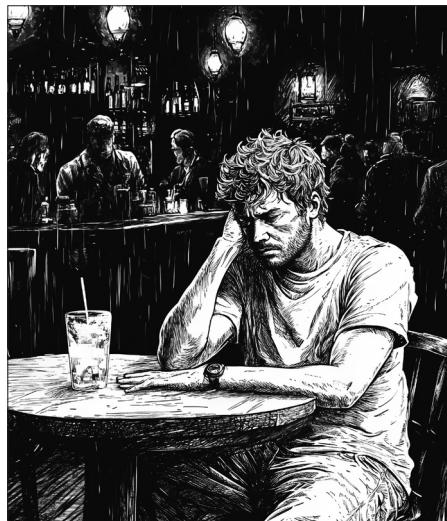


점점 나는 상상 속의 봇질로 선을 그리고 색을 채우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나에게 말을 거는 얼굴을 완성했다. 그것은 그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고, 이제는 그것이 될 수도 없었다.

-132p-

새로운 사회에서 끊임없이 외롭고 다른을 느낄수록, 나는 더욱 더 그들과 떨어질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술 마시고 허세 부리는 것이 진정으로 즐거웠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술에 적응하지 못해 매번 고통스러운 결과를 경험했고 모든 것은 마치 강제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123p-



주요 문장 필사

‘운명과 마음은 같은 개념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문장을 초상화 아래에 적으며, 나는 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생각 정리하기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의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등 어떤 방법이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감정의 표현할 수 있었나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애쓴다



이제 그것은 맹금류가 되었고, 날카롭고 대담한 참매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 새는 몸의 절반정도를 검은 세계 구체 속에 담그고 있었고, 그곳에서 마치 거대한 알에서 나오는 것처럼 몸을 빼고 있었다.

-145p-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상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상을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나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데미안의 답변이었다.

-152p-



주요 문장 필사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상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상을 파괴해야 한다.



생각 정리하기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알에서 나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또는 어떤 알에서 나오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가요?

야곱의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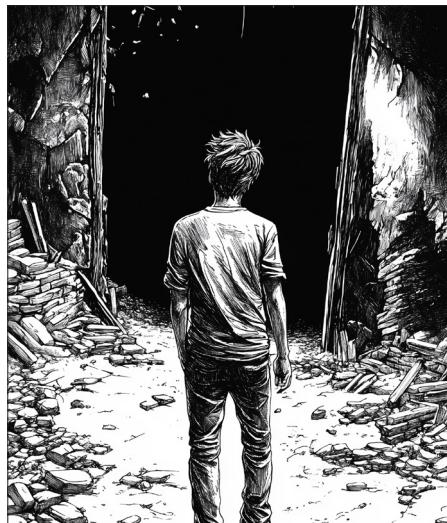


피스토리우스가 했던 말, 아니면 데미안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언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운 이야기와 “나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구절에 관한 말들이었다.

-193p-

고향에서 처음으로 나를 괴롭혔던 크로머가 끌고 갔던 신축 건물이 떠올랐다. 비슷한 건물이 회색 밤 속에 나를 향해 검은 문구멍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모래와 잔해에 걸려 넘어졌다. 그 충동이 너무나 강해서 들어가야만 했다.

-195p-



주요 문장 필사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타인 속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생각 정리하기

싱클레어는 자신과 갈등하면서 성장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내면의 갈등이 있었나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에바부인



새 그림 아래 열린 문에 어두운 옷을 입은 큰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처럼 시간과 나이를 초월한 얼굴에서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여인이 나를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충만함을, 그녀의 인사는 귀환을 의미했다.

-224p-

— — — — —

마침내 나는 데미안을 찾았다. 그는 열린 정자 안에 서 있었고, 상반신을 드러내고 모래 주머니 앞에서 복싱 연습을 하고 있었다. 놀라서 나는 멈춰 섰다. 데미안은 훌륭해 보였다. 넓은 가슴, 강건한 남성적인 머리, 당긴 근육을 가진 팔이 강하고 튼튼했으며, 그의 움직임은 엉덩이, 어깨, 팔꿈치에서 나오는 듯 자연스러웠다.

-230p-



주요 문장 필사

‘우리 세계는 썩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탄생이 다가오고 있으며, 죽음 없이 새로운 것은 오지 않습니다.’



생각 정리하기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와 운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떤 존재이길 원하나요?

끝의 시작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일은 내면의 방출, 자신과 분열된 영혼의 발산이었다. 그것은 광기와 살인, 파괴와 죽음을 원했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였다. 거대한 새가 알에서 나오려는 몸부림이었고, 그 알은 세상이었으며, 세상은 부서져야 했다.

-262p-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떠나야 해. 언젠가 크로머나 다른 누구에 맞서 네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할지도 모르지만 그때 나를 부르면, 나는 더 이상 말을 타고 거칠게 오거나 기차를 타고 오지 않을 거야. 그때는 네 안을 들여다보아야 해.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해하니?”

-266p-



주요 문장 필사

많은 이들이 싸우고 죽으며 내면의 갈등과 분열을 방출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생각 정리하기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자신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자신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이해하려 했나요?
